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There Is a Correspondence of All Things of Heaven with All Things of Man*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7)

지난주, 스페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11장, ‘천국이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성 인성에서 비롯된다’(It Is from the Lord’s Divine Human That Heaven as a Whole and in Part Reflects Man)에 이어 오늘은 12장,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There Is a Correspondence of All Things of Heaven with All Things of Man)입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신성 인성(the Lord’s Divine Human)에 관한 설교가 몇 주 있겠습니다 예고드렸는데요,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arcana, 秘義)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볼드체(굵은 글씨)는 원본을 의미합니다.

※ 글들 중에는 그 끝에 원본 주석들이 있는 글들이 있으며, 거기 나오는, 가령, ‘AC.4280, 3021...’ 같은 숫자들은 ‘Arcana Coelestia’라고, 스페덴보리가 쓴, 총 10,837개의 글로 된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의 글번호를 가리킵니다.

시작합니다.

**87** 상응(相應, *correspondence*)이라는 게 뭘지 오늘날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 몇 가지 이유들 중 가장 주(主)된 이유는 사람이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로 말미암아(*by the love of self and love of the world*) 스스로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과 세상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세상일, 세속적인 일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의 외적 감각(*the external sense*)에 어필, 자연적 욕망(*the natural longings*)을 만족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는 영적인 일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건 내적 감각(*the internal senses*)에 어필, 마음(*the mind*)을 기쁘게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은 옆으로 제쳐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건 자기한테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 다. 그들에게는 여러 지식들 중 상응 지식이 가장 주였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지성과 지혜를 얻었 으며, 그것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 들은 천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상응 지식은 천사적 지식(*angelic knowledge*)이기 때문입니다. 천적(天的, *celestial*) 인간이었던 태고인들(太古人, *the most ancient people*)은 천사들처럼 상응 자체로(*from correspondence itself*)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과 대화했고, 주님도 자주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직접 그들을 가르치 셧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 어느 누구도 상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sup>72</sup>

※ 72. 상응에 속한 지식은 다른 지식들을 얼마나 초월하는지 모릅니다(AC.4280). 상응 지식은 고대인들의 가장 주된 지식이었지만, 오늘날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AC.3021, 3419, 4280, 4749, 4844, 4964, 4966, 6004, 7729, 10252). 상응 지식은 동방 국가들과 이집트에서 번창했습니다(AC.5702, 6692, 7097, 7779, 9391, 10407).

※ ‘상응(相應, *correspondence*)’은 영계와 자연계를 이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도 왜 오늘날은 이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게 되었는지, 하지만 현대인과 달리 태고인은 오히려 모든 걸 이 상응으로 이해, 주님을 비롯, 천사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내적 존재들이었다는, 그렇게 이 ‘상응’에 있어 오히려 오늘 우리는 가장 퇴보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88 그래서 상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퍼셉션 없이는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 곧 영계(靈界, *the spiritual world*)나 영계에서 자연계로 흘러드는 어떤 흐름(*inflow*)이라든지, 그리고 육(肉) 관련, 영이라는 게 뭔지(*what the spiritual is in its relation to the natural*), 영혼(*the soul*)이라 하는, 사람의 영(*the spirit of man*)에 대한 것과 이 영이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its operation into the body*), 또 사람의 사후 상태 등, 이런 주제들에 관한 어떤 명료한 지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상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성(*what correspondence is and the nature of it*)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일종의 길 안내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상응’을 알아야 이어지는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89** 먼저, 상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자연계 전체가 영계와 상응하며, 이는 일반적으로뿐 아니라 자연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영계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sprin*

*gs from*) 자연계 내 모든 걸 가리켜 일종의 상응물(*a correspondent*)이라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결과는 그 결과의 원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처럼, 자연계는 영계로부터 샘처럼 솟아나며, 영계에 의해 영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 아래 퍼져나가는 모든 것, 그리고 해의 열과 빛을 받는 모든 것을 자연계라 합니다. 어떤 세계로부터 자기들의 최소한의 것(*subsistence therefrom*)을 받는 모든 것은 그 세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계는 천국이며,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세계에 속합니다.

※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계로 말미암은 상응물, 즉 존재하는 그 무엇이든지 다 거기에 연결된 영계, 곧 천국의 그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90** 사람은 천국과 세상 둘 다 가장 큰 이미지를 닮은 가장 작은 형태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 57번 글 참조, 57번 글이 들어 있는 장 제목은 ‘각 공동체는 보다 작은 형태의 천국이고, 각 천사는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이다’입니다), 그의 안에는 영계와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자연계 둘 다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mind*)에 속하고, 또 이해와 의지(*understanding and will*)에 관련되는 내부의 일들(*the interior things*)은 그의 영계를 이루는 반면, 그의 몸에 속하고, 또 감각과 행동(*its senses and activities*)에 관련되는 외부의 일들(*the exterior things*)은 그의 자연계를 이룹니다. 그 결과, 그의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그의 몸 및 그 감각과 행동 안에 있으며, 그의 영계, 곧 그의 마음 및 이해와 의지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일종의 상응물이라고 합니다.

※ 즉 사람은 영계와 자연계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영계로 말미암은 상응물이라는 것입니다. 지상 자연계의 모든 것이 천국 영계와 상응하듯 사람의 자연계 역시 사람의 영계와 상응한다는 말입니다.

**91** 사람의 얼굴을 보면 상응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꾸미는 걸 배운 적이 없는 천진난만한 얼굴에서는 마음의 모든 어펙션(愛情, *the affections of the mind*)이 순수함 그대로 주욱 전시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요, 이것이 바로 왜 얼굴을 가지고 마음의 표지(*the index of the mind*)라 하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즉 얼굴은 자연계에 전시된, 사람의 영계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에 관계된 것은 말로(*in speech*), 의지에 관련된 것은 몸의 움직임으로 전시됩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여 나오는 모든 것, 그것이 얼굴에서든, 말에서든, 아니면 몸의 움직임에서든 다 상응이라고 합니다.

※ 겉으로 보이는 얼굴 표정, 말본새, 그리고 행동거지들은 사실은 각각 속마음, 이해, 그리고 의지가 밖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즉 겉은 속의 상응물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세상과 영계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 세상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계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영계에서는 누구나 늘 겉과 속이 같다는 말인데요, 악인이면 겉도 악하고 속도 악하고, 선인이면 겉도 선하고 속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92** 또한 이 모든 것이 보여 주고 있는 사실들은 속 사람(*the internal man*)이라는 게 무엇이며, 겉 사람(*the external man*)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이라는 건 무엇인지, 즉 속 사람을 영적 인간(*the spiritual man*), 겉 사람을 자연적 인간(*the natural man*)이라 한다는 것, 또 이들은 마치 천국이 세상과 다르듯 구별된다는 것과, 또 겉 사람, 즉 자연적 인간한테서 발생, 진행되는 모든 일은 속 사람, 즉 영적 인간으로부터 발생,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 속 사람, 겉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속 사람과 겉 사람을 각각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속 사람만 가지고 살펴보면, 속 사람 안에서 또 겉과 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후 첫 번째 상태와 두 번째 상태가 구분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이 책 2부 ‘영들의 세계’에서 보시게 됩니다.

93 사람의 속, 즉 영적인 것과 사람의 겉, 즉 자연적인 것 사이 상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만하면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천국 전체와 사람의 모든 것 사이 상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천국 전체는 한 사람 모

94 습이며,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미지를 가진 천국을 가리켜 가장 큰 사람(*The Greatest Man, The Grand Man*)이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천국을 구성하는 천사 공동체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사람의 지체, 기관 및 내장들처럼(*as the members, organs, and viscera*) 배치, 배열되어 있다는 것, 즉 일부는 머리에, 일부는 가슴, 일부는 팔, 이런 식으로 저마다 자신의 해당 부위에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위 59-72번 글 참조). 그 결과, 천국 큰 사람의 어느 지체에 있는 공동체들은 사람의 해당되는 그 지체와 상응합니다. 머리에 있는 공동체들은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있는 공동체들은 사람의 가슴과, 팔에 있는 공동체들은 사람의 팔과,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서로 상응합니다. 사람의 항구적 존재는(恒久的, *man has permanent existence*) 바로 이런 상응으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천국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람은 이렇게 항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의 여러 연약함과 질병 치료, 치유에 이 사실이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주

요15:7, HH.87-102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님 지상 시절, 복음서를 보면 사람  
 들이 바로 눈앞에서 병이나 장애를  
 고침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비  
 밀이 바로 이 사실, 곧 ‘천국의 모  
 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령, 시력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력에 해당하는  
 천국 공동체들의 어떤 도움을 받으  
 면 회복되는 게 아닐까 하는... 지금  
 도 저는 이 치유 은사의 비밀을 계  
 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95 천국이 천적 나라(*the celestial kingdom*), 영적 나라(*the spiritual kingdom*) 두 나라로 나뉜다는 사실은 앞서 해당 장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천국 전체인 큰 사람 몸 전체(*the whole body*)에서 천적 나라는 일반적으로 심장(心臟, *the heart*)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에, 그리고 영적 나라는 폐(肺, *the lungs*)와 그에 관련된 모든 것에 상응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서도 심장과 폐는 두 나라를 구성하는데(*form*), 심장은 동맥과 정맥(*the arteries and veins*)을 통해, 폐는 힘줄과 운동신경섬유(*the tendinous and motor fibers*)를 통해 사람 몸 전체를 다스리며, 둘이 함께 인체 내 모든 안팎의

활동을 관장합니다.

※ 천국의 경우, 천적 나라가 천국의 심장 역할을, 영적 나라가 천국의 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사람의 경우는 천적 나라 역할을 인체 내 심장이, 영적 나라 역할을 폐가 각각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즉 어느 경우든 천적 나라는 심장과, 영적 나라는 폐와 연결된다, 상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영계(*his spiritual world*), 곧 그의 영적 인간(*his spiritual man*)이라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두 나라, 하나는 의지, 곧 선에 대한 애정(*affections for good*)으로 다스리는 의지의 나라(*the kingdom of the will*), 다른 하나는 이해, 곧 진리에 대한 애정(*affections for truth*)으로 다스리는 이해의 나라(*the kingdom of the understanding*)가 있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각각 인체 내 심장과 폐의 나라들에 상응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적 나라는 천국의 자원하는, 즉 의지적인 데(*the voluntary part of heaven*)로서 거기는 사랑의 선이 다스리는 곳인 반면, 영적 나라는 천국의 지성적인, 즉 인식과 관련된 데(*the intellectual part of heaven*)로서, 거기는 진리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가 다스리는 곳이지요. 이들이 인체 내 심장과 폐 기능에 각각 상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마음’(심장, *heart*)이 의지와 사랑의 선을, 그리고 폐의 ‘숨’(*breath*)이 이해와 신앙의 진리를 각각 의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상응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심장으로 애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 안에 있지도, 그것으로 말미암지도 않는 데 말입니다.<sup>73</sup>

※ 73. 천국에 있는, 가장 큰 사람의 심장과 폐의 상응에 관한 경험(AC.3883 - 3896) 심장은 천적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폐는 영적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응합니다(AC.3885 - 3887). 천국에 마치 심장의 고동과 같은 어떤 고동과 폐의 호흡과 같은 어떤 호흡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말이지요(AC.3884, 3885, 3887). 거기 심장의 고동은 사랑의 상태에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은 체어리티와 신앙의 상태에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합니다(AC.3886, 3887, 3889). 말씀에서, ‘심장’은 의지를, ‘심장으로부터’는 의지로부터를 의미합니다(AC.2930, 7542, 8910, 9113, 10336). 또 말씀에서, ‘심장’은 사랑을, ‘심장으로부터’는 사랑에서부터를 의미합니다(AC.7542, 9050,

10336).

※ 천적 나라와 심장, 의지, 사랑, 선이 죽 연결되고, 영적 나라와 폐, 이해, 신앙, 진리가 죽 연결됩니다.

※ 천국 전체가 가장 큰 한 사람 모습이라는 진술도 매우 놀라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 전체에 사람의 심장 박동과 같은 어떤 영적 펄스와 사람의 폐 호흡과도 같은 어떤 내적 호흡(*an interior respiration*)이 있다는 사실 또한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96 천국 두 나라, 천적 나라, 영적 나라와 사람의 심장, 폐 사이 상응을 천국과 인간 사이 일반적인 상응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덜 일반적인 상응 또한 있어 몸의 각 지체와 기관, 내장에 존재하는데요, 이 또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사람 안에서, 거기가 천국인데요, 머리 부분에 있는 천사들은 모든 선, 사랑 안에 있음(*being in love*), 평화, 이노센스(*innocence*, 純眞無垢), 지혜, 지성과, 그 결과인 기쁨과 행복에 있어서 다른 모든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머리와, 머리에 속하며 머리에 상응하는 것들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안으로 유입(流入, *flow into*)됩니다. 가장 큰 사람, 곧 천국에서 가슴 부위에 있는 천사들은 체어리티(*charity*)와 신앙의 선 안에 있으며,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가슴으로 유입, 그것에 상응합니다. 가장 큰 사람인 천국에서 음부(陰部, *loins*, 사타구니, 서혜부, *groins*), 생식기 부위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애(結婚愛, *marriage love*) 안에 있습니다. 발 부위에 있는 천사들은 천국의 가장 낮은 선, 곧 영적-자연적 선(*spiritual-natural good*)이라 하는 선 안에 있습니다. 팔과 손 부위에 있는 천사들은 선에서 나오는 진리의 능력(*the power of truth from good*) 안에 있습니다. 눈 부위에 있는 천사들은 이해(*understanding*) 안에, 귀 부위에 있는 천사들은 주의와 복종(*attention and obedience*) 안에, 코 부위는 피셉션(*perception*, 지각) 안에, 입과 혀는 이해와 피셉션으로 대화하는 능력(*the ability to converse from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안에, 신장(腎臟, *kidneys*)은 조사, 분석 및 바로잡는 진리(*truths searching, separating, and correcting*) 안에, 간, 췌장 및 비장(脾腸, *spleen*)은 선과 진리의 다양한 정화(*various purifications of good and truth*) 안에 등, 기타 나머지를 역시 다 그런 식으

로 상응합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의 몸 해당 부위로 흘러들며, 거기와 상응하는데요, 이것이 몸의 각 지체의 기능들과 쓰임새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천국의 입류입니다. 쓰임새라는 것은 영계에서 비롯되는데, 자연계에 있는 해당 사물들을 통해 형체를 띠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게 상응입니다.

※ 즉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영계에서 온 어떤 쓰임새가 겉모양이라는 물질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 이렇게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영안(靈眼)으로는 세상 만물이, 그리고 특히 사람, 인간, 무엇보다 나, 나의 이 몸 전체가 천국과, 그리고 천국을 통한 주님과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은 입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입류가 끊어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소멸된다는 사실이 정말 생생하기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7)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97** 같은 이유로, 이들 동일한 지체, 장기 및 내장들은 말씀 안에서 유사한 상징들을 갖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은 상응에 따른 어떤 의미들을 갖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머리’는 지성과 지혜를, ‘가슴’은 체어리티를, ‘허리’는 결혼애, ‘손과 팔’은 진리의 능력, ‘발’은 자연적 능력, ‘눈’은 이해, ‘콧구멍’은 퍼셉션(*perception*), ‘귀’는 순종, ‘신장’은 진리에 관한 조사, 그리고 기타 등등<sup>74</sup>... 각각 어떤 의미들을 갖습니다.

※ 74. 말씀에서 ‘가슴’은 체어리티를 상징(AC.3934, 10081, 10087). ‘허리’와 생식기는 결혼애를 상징(AC.3021, 4280, 4462, 5050 - 5052). ‘팔’과 ‘손’은 진리의 파워를 상징(AC.878, 3091, 4931 - 4937, 6947, 7205, 10019). ‘발’은 자연적인 것을 상징(AC.2162, 3147, 3761, 3986, 4280, 4938 - 4952). ‘눈’은 이해를 상징(AC.2701, 4403 - 4421, 4523 - 4534, 6923, 9051, 10569). ‘콧구멍’은 퍼셉션을 상징(AC.3577, 4624, 4625, 4748, 5621, 8286, 10054, 10292). ‘귀’는 순종을 상징(AC.2542, 3869, 4523, 4653, 5017, 7216, 8361, 8990, 9311, 9397, 10061). ‘신장’(콩팥)은 진리에 대한 정밀 조사와 바로잡음을 상징(AC.5380 - 5386, 10032).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상 언어생활에도 보면, 가령, 누가 총명하고 지혜로우면 그는 머리가 좋다 하고, 누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 그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다 하고, 지각이 뛰어나면 냄새를 잘 맡는다, 지능적이면 눈이 날카롭다, 힘이 세면 팔이 길다, 그의 의지를 사랑으로 훈련하는 걸 보고 마음에 우러나서 한다고 하지요. 사람들의 언어생활 가운데 이 밖에도 다른 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모두 상응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영계에서 오는 것이지요.

**98**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 이런 상응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아주 명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으면 제가 이 사실만큼 추호도 의심 없이 아주 확실하게 믿는 것도 없을 정도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모든 경험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분량 때문에라도 곤란합니다.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인 ‘아케이나 코엘레스티아(*Arcana Coelestia*, 天界秘義)’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를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상응이라든지, 표상(表象, *representation*)이라든지, 영계에서 자연계로의 입류(入流, *the influx of the spiritual world into the natural world*)라든지, 영육 간 상호작용(靈肉, *the interaction between soul and body*) 등을 다룬 데들을 보시면 됩니다.<sup>7</sup>

5

※ 75. 인체를 이루는 모든 것은 가장 큰 사람(*the Greatest Man*), 즉 천국과 일반적으로든 구체적으로든 상응한다는 경험(AC.3021, 3624 - 3649, 3741 - 3750, 3883 - 3895, 4039 - 4054, 4218 - 4228, 4318 - 4331, 4403 - 4421, 4523 - 4533, 4622 - 4633, 4652 - 4660, 4791 - 4805, 4931 - 4953, 5050 - 5061, 5171 - 5189, 5377 - 5396, 5552 - 5573, 5711 - 5727, 10030). 영계에서 자연계, 즉 천국에서 지상으로 흐르는 입류, 영혼에서 몸 전체로 흐르는 입류에 관한 경험(AC.6053 - 6058, 6189 - 6215, 6307 - 6326, 6466 - 6495, 6598 - 6626). 영육 간 교류에 관한 경험(AC.6053 - 6058, 6189 - 6215, 6307 - 6327, 6466 - 6495, 6598 - 6626).

99 사람 몸의 모든 것이 천국의 모든 것과 상응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천국 형상인 것은 그의 외적 형태가 아닌 내적 형태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은 천국을 받지만, 외면은 세상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내면이 천국을 받는 한, 사람은 그 내면에 있어 그만큼 가장 큰 형상을 따르는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이 천국을 받지 않으면 그는 그만큼 천국도, 가장 큰 천국 형상도 아닙니다. 비록 그의 외면은 세상을 받아 세상 질서(*the order of the world*)에 맞는 형태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떨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몸 관련 아름다운 외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태생적 이유에 기인하며, 그 후 세상의 일반적 입류에 의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의 자연적 인간의 모습, 즉 그의 겉모습은 그 사람의 영적 인간의 모습, 즉 영의 모습과 아주 다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의 모습, 즉 그 사람의 영체의 생김새를 저는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고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그 영의 생김새는 굉장히 일그러진, 새까맣고 가히 천국은커녕 지옥의 형상이라 해도 될 만큼 괴물 모습이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그 겉모습은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 영은 매우 아름다운, 순결한 천사의 모습이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부언하면, 사람의 영은 사후(死後) 그가 세상 살 동안 그 몸 안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 ‘세상 질서’(the order of the world)란 ‘세상에 의해 결정되는’(determined by the world)이란 의미로, ‘미(美)를 비롯, 어떤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세상적인’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몸은 영의 옷이라 해도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릇이나 옷이 아니라 그속의 내용물, 곧 영입니다. 사후 영계에서 깨어나는 건 바로 이 영뿐이기 때문입니다.

**100** 그러나 상응은 사람한테만이 아닌 훨씬 광범위하게 확장됩니다. 천국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응이 있기 때문인데요, 삼층천, 즉 가장 내적 천국에는 이층천, 즉 중간 천국이 상응하고, 이 이층천, 즉 중간 천국에는 일층천, 즉 가장 외적 천국이 상응하며, 이는 사람의 신체 내 사지, 기관, 내장이라 하는 것들한테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천국이 최종적으로 마치는 곳, 그리고 천국의 기초를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이 아케이나에 관해서는 따로 아주 충분하게 다루겠습니다.

※ 참으로 주님의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전체 설계는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01** 특별히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천국하고의 모든 상응은 주님의 신성 인성(the Lord's Divine human)하고의 상응이라는 사실인데요, 선행 장들에서 이미 다루었듯 천국은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이 곧 천국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성 인성이 천국의 모든 것 안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그리고 상응에 따라 이 세상 모든 것 안으로도 유입되지 않으면 어떤 천사나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로 거듭 분명해지는 것은, 왜 주님은 사람(Man)이 되셨으며, 그분의 신성(his Divine)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성(a human)으로 옷 입히셨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천국들의 기초인 사람이 질서를 뒤엎어 파괴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before the

‘천국의 모든 것과 사람의 모든 것 사이에는 일종의 상응(相應)이 존재한다’(*Lord’s coming*) 천국을 존재케 했던 그 신성 인성으로는 더 이상 만물을 계속 붙들고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신성 인성은 어땠으며, 그때 천국의 상태(*the condition of heaven*)는 어땠는지는 선행 장 부록 발췌를 보시면 됩니다.

**102** 천사들은 만물을 자연에는 돌리지만, 신성에는 아무것도 안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또 천국 그 수많은 경이로움의 집합체인 사람의 몸을 단지 자연의 산물 정도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랍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더욱 놀라는데, 그것은 사람의 합리적, 이성적인 면(*the rational part of man*)이 자연에서 온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만일 사람들이 그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들어 올려 보면 대번 그런 건 자연이 아닌 신성으로 말미암으며, 자연이란 단지 영적인 것이 옷을 입은 것일 뿐이요, 상응 단계 중 가장 최종 단계로 드러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두움 속에서는 보지만 빛 속에

서는 아무것도 못 보는 올빼미에 비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상응’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천국, 세 천국들 간, 그리고 천국과 지상, 사람의 영과 육, 속 사람과 겉 사람, 인체와 천국 등 모든 것이 상응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이 모든 피조세계는 어떤 형태로든 주님과 상응합니다. 이 ‘상응’은 우리 인간을 비롯,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주되신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는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천국에서 비롯된 내적인 내용들이어서 내적 존재들인 천사들한테는 아주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겠지만 겉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거둬거둬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부, 또 당부드리지만,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하셔서 깊이 소화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10-23(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